

삼국시대 머리 장신구에 대한 연구

김 문 자

수원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A Study on the Hair Ornaments in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 States

Moon Ja Kim

Associate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wo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of the Hair ornaments in old tombs of the Three Kingdom States. Hair ornaments was divided into Combs, Rod-like hairpins, Chae(;釵), Boyo(;步搖).

Combs were 2 type in according to the tooth's space, wide-tooth comb[;梳] and fine-tooth comb[;比]. The general name of two type was called Jeul(;櫛). Combs were excavated from the only ancient Silla tombs.

Rod-like hairpins were called Ghae(;笄) or Jam(;簪). They were found in most of the old tombs in Goguryeo, Baekje, ancient Silla tombs. The style was L-type and embellished circular head-type.

Chae(;釵) was understand Cha(;叉) that had two tongs. Chae(;釵) was generally U-type and rarely hairtweezers-type. Jakchae(;爵釵) was understand distinctive Chae(;釵) hanged with phoenix. This type was excavated from the only Baekje tombs of King of Muryeong.

Boyo(;步搖) was originally a hair decoration of the northern nomadic tribes which had been introduced to the Wijin period. Boyo gained its popularity by the women in Dang Dynasty, hair ornaments were considered indicators of status and wealth. Boyo(;步搖) hair accessory features of which are suspended from a elaborate hairpin structure. Such pieces were designed to sway as their wearer walked. The bequest was not found, but we catch the Boyo(;步搖) that was women' head decoration in painting of old tombs in Goguryeo.

Key words: Combs, Rod-like hairpins, Chae(;釵), Boyo(;步搖).

I. 서 론

인류가 장신구로 몸치레를 하기 시작한 것은 중기 구석기시대쯤이라고 알려져 있다. 당시의 장신구는 뼈, 뿔 등으로 만든 간단한 것이었으나 후기 구석기시대부터 신석기 시대에 이르러서는 신체의 각 부분을 치레하는 여러 가지 장신구가 발달하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 장신구가 발달한 것은 몸치레로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욕심에서 뿐만 아니라 다분히 주술적인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회

의 형성, 발전과 더불어 장신구는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신분의 표상으로 한층 더 증가, 발달하여 삼국시대에는 여러 가지 화려한 장신구가 만들어졌다.

머리 裝身具도 그중 하나로 冠帽의 발달과 더불어 머리 자체를 꾸미기 위한 여러 가지 장신구들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삼국시대 머리 장신구들에 대한 직접적인 古記錄은 없지만 「隋書」, 「舊唐書」, 「新唐書」 등에 신라여인들에 대하여 머리에 여러 가지 비단과 구슬로 장식하고 있다는 기록¹⁾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한 結髮 상태를 넘어 여러 장식을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며 또한 삼국시대 고분출토품이나 고분벽화 등을 통해 다양한 머리 장신구들이 머리 장식을 위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先行研究²⁾는 대부분 假髻를 포함한 髮樣에 대한 것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며 또한 북한 발굴 자료들은 최근에 접하는 것들도 있어서 체계적인 연구 성과가 아직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研究에서는 북한 발굴 고구려 유물 자료들을 포함하여 삼국시대의 머리 장신구만을 고분출토품들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은 고분출토품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삼국시대 머리 장신구들의 양식을考察하고 그 양식분류와 始原形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먼저 각 머리 장신구의 용어들을 古文獻을 통하여 科明하고 그에 따르는 고분출토품이나 고분벽화에 나타난 머리 장신구들의 양식을 分類한다.

연구범위는 주로 古文獻과 고분출토품, 고분벽화 인물도 등 자료에 한한다.

II. 빗·비녀 文獻 考察 및 樣式

1. 빗 (梳, 比, 櫛)

『釋名』釋首飾에 '梳라는 것은 齒가 성긴 것을 말하고 촘촘한 것은 比라고 부르는데 比는 梳에 비해 그 齒의 밀집도가 높은 것을 이른다.'³⁾고 하였다.

중국에서는 각종 유물들이 크게 나뉘어 이와 같이 두 종류의 '梳'와 '比'로 구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⁴⁾

한편 『說文』에는 '梳와 比를 총칭하여 櫛이라고 부르고 있다.'⁵⁾고 한다.⁶⁾



<그림 1> 황금빗. B. C. 5~4C 스키타이 드네프르 자포로제 솔로하 고분 출토
(스키타이 황금, p. 115)

중국에서의 이와 같은 빗의 출토 유물은 '梳'와 '比'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에서 머리에 빗을 주로 장식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빗의 유물은 스키타이 B. C. 5~4C대의 유물인 드네프르 자포로제 솔로하 고분 출토 황금빗 (그림 1)⁷⁾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前述한 '梳' 종류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성긴 빗살위에 스키타이 戰士들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는데 이것도 머리에 꽂으면 상부의 전사상 모습만 밖으로 보이게 되어 있어 장식빗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머리빗은 우리 복식문화의 원류로 생각하는 스키타이 유물에서도 보이므로 중국에서 우리

1) 『隋書』卷八十一·列傳第四十六·東夷傳·新羅條… 婦人髻髮繞頭以雜綵, 及珠爲… 『舊唐書』卷一百九十九上·列傳第一百四十九上·東夷傳·新羅條… 婦人髮繞頭, 以綵及珠爲飾… 『新唐書』卷二百一十·列傳第一百四十五·東夷傳·新羅條… 率美髮以繞首, 以珠彩飾之…

2) 김용문, "아시아의 修髮樣式에 관한 研究"-東아시아를 중심으로,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1993. 裴貞龍, "三國時代 婦女首飾의 樣式에 관한 研究", 진흥섭선생회갑기념논문집, 1982. 鄭美敬, "우리 나라 여인의 머리 모양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3) 梳, 『其齒疏也, 數言比, 比於梳, 其齒數差數也, 亦言細粗比也』

4) 周迅·高春明, 『中國歷代婦女妝飾』, 三聯書店, 上海學林出版社, 1988, pp. 80-81.

5) 櫛, 梳比之總名也

6) 林巳奈夫(編), 『漢代の文物』,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76, pp. 86-87.

7) 국립중앙박물관(편), 『스키타이 황금』, 서울: 조선일보사, 1991, pp. 114-117.



<그림 2> 나무빗. 초기 철기시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264-3번지 일대 출토
(http://www.museum.go.kr/kor/sch/sch_src/sch_src_lis.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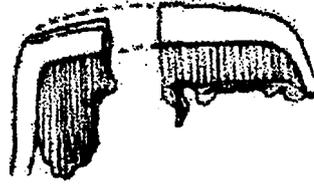
나라로 전래된 것으로만 생각되기는 어렵고 스키타이 문화의 전래와 함께 중국문화와 혼합되어 발생한 양식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삼국시대 이후이기는 하지만 통일신라시대 흥덕왕 복식금제에 있는 禁制品에는 '梳'라는 명칭이 보이고 있으며⁸⁾ 유물로도 玳瑁빛과 장식빗⁹⁾이 출토되고 있는데 전자는 齒가 후자에 비해 성글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 나라에도 중국식의 '梳'와 '比'의 양식이 공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통일신라 이전인 삼국시대에도 두 가지 양식이 공존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삼국시대 우리 나라의 고분 출토 유물들은 유물 출토시 完形으로 출토된 것도 거의 없고 거의 復元해 놓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정확히 '소'와 '비'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또한 중국에서도 두 종류를 總稱하여 '櫛'이라는 명칭으로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研究에서는 우리 고유의 명칭인 '빗'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삼국시대 이전 우리 나라의 가장 오래된 유물은 초기철기시대 것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264-3번지 일대 출토 빗 (그림 2)으로 黑漆木心으로 활모양의 배부에 직접 날을 새겨 만든 刻齒式이며 끝이 뾰족한 30개의 빗살이 달려 있다. 頭部는 잘 남아 있으나 양쪽 끝쪽에 날의 일부가 부식되어 없어졌다. 이 빗은 우리 나라에서 현재까지 출토된 것 가



<그림 3> 나무빗. 고신라 경주 壺杆塚 출토
(*壺杆塚과 銀鈴塚* p.30)

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¹⁰⁾ 길이는 11.7 cm, 너비는 6.5 cm 정도이다.¹¹⁾ 이것은 형태상 '梳'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삼국시대 고분출토 빗의 유물은 고신라 고분출토 품들을 들 수 있다.

경주 壺杆塚 출토 木櫛 (그림 3)은 漆을 바른 것으로 보이며, 썩어서 원래 어떠한 나무인지를 알 수 없다.¹²⁾

경주 황남동 제 98호분 북분출토품은 나무빗으로 모두 4개분이 출토되었으나 2개만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며 나머지 2개는 원형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파손되었다. 비교적 원형이 잘 남아 있는 2개의 나무빗은 서로 그 형태를 달리 하고 있는데 其1 (그림 4)은 上緣部가 弧形으로 彎曲되고 兩側緣이 곧게 선 형태이고, 상연부를 깎아 올려 끝부분이 稜角을 이루고 있다. 빗살의 간격은 0.1cm 정도로 촘촘하다. 복원된 형태는 전체길이 11cm, 높이 약 7.5cm, 상연부 두께 1cm이다. 其2 (그림 5)는 上緣과 側緣이 모두 굽어져 전체적으로 타원형에 가깝고, 상연부를 양쪽으로 깎아 내어 중간에서 턱을 이루고 있어 단면이 菱形에 가깝다. 빗살의 간격은 0.1cm로 촘촘하며 빗살은 其1보다 좀더 두껍다. 복원된 형태는 전체길이는 10.5cm, 높이 약 7.5cm, 상연부 두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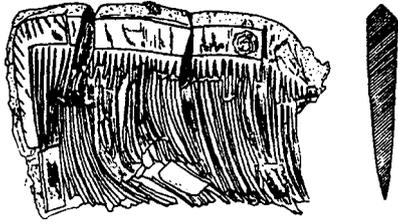
8) 유희경, 김문자,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99, pp.81,90.

9) 韓炳三(編), 『韓國美術全集』 2, 古墳美術. 서울: 同和出版社, 1975, pp.130-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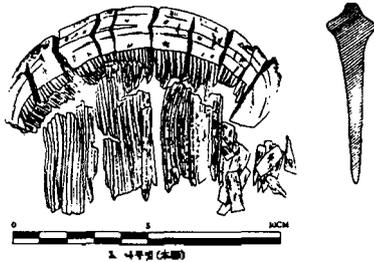
10) http://www.museum.go.kr/kor/sch/sch_src/sch_src_lis.jsp

11) <http://gwangju.museum.go.kr/kor/sch/sch.htm>

12) 金載元, 金元龍, 『壺杆塚과 銀鈴塚』 『國立博物館 古蹟調査報告書』, 1948, p.30.



<그림 4> 나무빗. 고신라 경주 황남동 제 98호분 북분 출토
(皇南大塚(北墳)發掘調査報告書 p.139)



<그림 5> 나무빗. 고신라 경주 황남동 제 98호분 북분 출토
(皇南大塚(北墳)發掘調査報告書 p.139)

2cm이다. 부서진 나머지 2개분의 파편들 가운데에도 두 종류의 파편들이 모두 보이고 있어 같은 모양의 나무빗이 각각 2개씩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³⁾

경주 천마총에서도 木櫛 5개분이 출토되고 있는데 5개가 重疊되어 서로 깃들린 상태로 출토되었다. 上緣部가 弧形으로 外彎하여 양측면이 곧게 서 있어 요즈음의 알레빗과 같이 보이나 완전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확한 크기는 알 수가 없다. 빗살의 간격은 평균 1.7mm이며 상연부 두께는 1cm인데 상연의 가장자리를 양쪽에서 각기 2段으로 깎아 내었기 때문에 가장자리는 매우 얇아져서 빗살과 상연부의 境界에 한줄의 가는홈이 패여 있다.¹⁴⁾

경주 金鈴塚 출토 木櫛 (그림 6)은 파편이 남아 있어 그 원형은 알 수 있을 정도이다. 빗등이 洲濱形으로 그 폭은 넓지 않고 齒는 가늘고 길며 편평한 細手式에 속한다고 보고되어 있다.¹⁵⁾

경주 飾履塚 출토 木櫛은 2개소에서 출토되고 있는데 其 1 (그림 7)은 金鈴塚 출토품과 비슷한 양식의 빗등의 폭이 좁은 양식이고 다른 其 2 (그림 8)는 빗등의 폭이 현저히 넓고 扁平한 것으로 보이는데 齒는二者가 모두 가늘고 길었음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⁶⁾

이상과 같은 빗의 종류들을 고분출토품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빗의 유물

	명칭	시대	출토지
빗	황금빗	스키타이(B.C.5~4C)	드네프르 자포로쎬 솔로하 고분
	나무빗	초기철기시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264-3번지 일대
	나무빗	고신라	경주 호우총
	나무빗(2개)	고신라	경주 황남동 제 98호분 북분
	나무빗(5개)	고신라	경주 천마총
	나무빗	고신라	경주 금령총
	나무빗(2개)	고신라	경주 식리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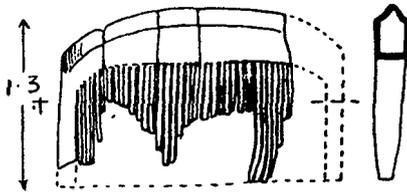
13)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皇南大塚(北墳)發掘調査報告書』, 1985, p.139.

14)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天馬塚發掘調査報告』, 1974, p.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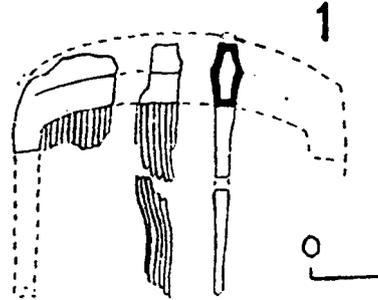
15) 梅原末治,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 『大正13年度古蹟調査報告第1冊』, 1932, p.99.

16) *Ibid.*, pp. 224-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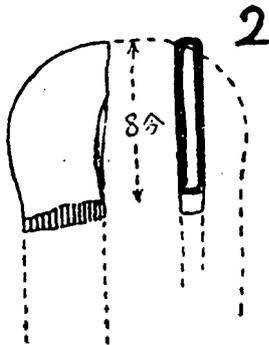
17) 笄, 係也, 所以係冠, 使不墜也



<그림 6> 나무빗. 고신라 경주 金鈴塚 출토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 p.99)



<그림 8> 나무빗. 고신라 경주 飾履塚 출토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 p.224)



<그림 7> 나무빗. 고신라 경주 飾履塚 출토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 p.224)

2. 비녀 (簪, 笄)

笄는 『說文』에 笄, 簪也 笄는 簪이라 되어 있어 兩者가 같은 것이라는 설과 笄는 簪의 일종인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前者의 경우이다.

『釋名』釋首飾에 '笄는 係라고 부르기도 하며, 冠을 연결하여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¹⁷⁾ 고 하였고, 또는 簪 또는 ... 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冠을 머리에 연결시켜 冠을 고정하는 것이었다.¹⁸⁾라고 기록하고 있다.

『禮記』內則에 '櫛縱笄總衣紳'의 笄에 笄, 今簪也 笄는 지금(後漢代)의 簪이라 하여 笄는 古語로서 漢代에는 '簪'이라는 단어로 불리운 것 같다.

그런데 笄는 이 같은 冠을 머리에 고정시키는 것

의 形狀 외에 頭髮을 돌려 묶어 芯으로 사용하였다.

즉 『主禮』追師 「爲副編次追衡笄」의 笄, 卷髮者 즉, 笄는 두발을 묶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상으로 笄는 冠을 고정시키는 용도는 물론 성인남자가 사용했고 또한 여성들도 머리에 장식용으로 常用했을 것으로 보이며 漢代 이후에는 주로 簪으로 불린 것으로 보인다.¹⁹⁾

우리 나라의 最古의 비녀 유물은 B. C. 3000년경의 소영자 고분에서 발굴된 뼈로 만든 비녀 (그림 9)이다. 비녀의 윗부분은 사람의 얼굴모양이 새겨져 있는 타원형이고, 그 아래는 기하학적 무늬가 새겨져 있는 가늘고 긴 손잡이 부분으로 되어 있다. 가장 긴 것은 24.5cm, 짧은 것은 13cm 이었다. 이런 비녀가 남녀 모두의 무덤에서 출토되고 있다.²⁰⁾

삼국시대인들의 머리에 비녀를 꽂고 있는 모습은 고구려 고분벽화 인물도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림이 떨어져 나가 확실한 모습을 볼 수 없지만 발굴 당시의 약수리 벽화 무덤 발굴 보고에는 벽화에 그려진 주인공부처상중 부인상은 高髻란 복잡한 방법으로 머리를 틀어 올리고 여섯 개의 황금빛 비녀를 꽂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²¹⁾ 또한 '황호근'은 「한국장신구사」에서 雙檀塚 고분벽화에 牛車를 따르는 여인상에서 간략한 두발모습을 표현하고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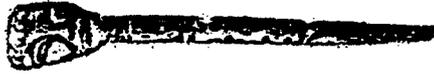
17) 笄, 係也, 所以係冠, 使不墜也

18) 簪, 髻也, 髻以 蓮冠於髮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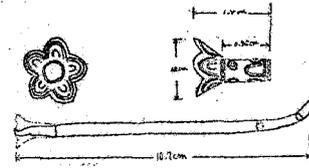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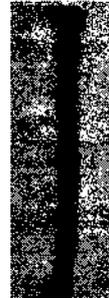
19) 林巳奈夫(編), *op. cit.* pp.83-84.

20) 김용문, *op. cit.* p.181.

21) 주영현, 「약수리 벽화 무덤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3, 과학원출판사, 1963, pp.141-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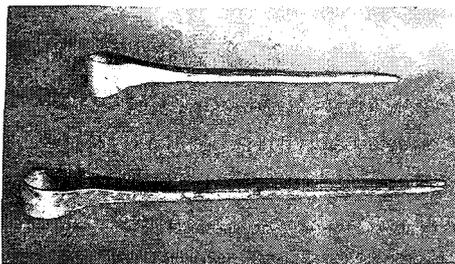
<그림 9> 뼈비녀. B.C. 3000년경 소영자 고분 출토
(『아시아의 修髮樣式에 관한 研究』, p.181)



<그림 12> 은비녀. 백제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함양리 출토
(『한국부식의 역사』, p.310)



<그림 10> 은비녀(L자형). 고구려 중국
길림성 집안현 출토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I, p.272)



<그림 11> 은비녀. 고구려 평안남도 순천시
북창리 고장골 제 1호분 출토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I, p.272)

기에 긴 비녀를 꽂은 모습을 나타내었다. 벽화에서
는 희미하게 나타나 있지만 비녀의 형태임이 틀림없
다.²²⁾ 고 하면서 고구려 여인들의 비녀 착용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벽화에 나타난 비녀의 고구려지역 출토
유물의 재료는 은과 금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길림성 집안현에서 출토된 은비녀 (그림 10)
는 L자형을 하고 있고, 평안남도 순천시 북창리 고장
골 제 1호분에서 출토된 長 7.0 cm(큰 것)의 은비녀

는 두 개 모두 (그림 11) 간결하게 되어 있다. 비녀의
머리부분은 둥글게 환형을 이루고 아무 장식이 없
는 비녀이다.²³⁾

팔정리벽화고분 출토품은 자세한 기록은 없고 다
만 은비녀가 1개가 출토되었다고만 기술되고 있어
형태나 크기 제작기법등은 알 수 없다.

1976년 干郊區鄕城 뒤의 한 耕作地에서 출토된
금비녀는 길이가 13.5cm이고 현재 집안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1965년 通溝八隊西山의 파괴된 고분에서 출토된
금비녀는 고구려 여인의 뒤꽂이로 사용되었던 것으
로 보인다. 현재 집안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²⁴⁾

백제 지역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함양리 출토품 (그
림 12)은 여인들의 머리를 묶어 장식하던 것으로 당
시 귀족 계층의 여인들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
다. 머리를 장식하는 은비녀로 한쪽 끝은 뾰족하게
하여 약간 꼬부리고 다른 한쪽 끝은 금판을 씌운 뒤
花文으로 장식하였다. 5엽의 꽃잎이 활짝 피어 있는
모양으로 각각의 꽃잎마다 조그마한 구슬모양의 連
珠文으로 장식하였고, 꽃의 대롱 부분 역시 연주문
으로 짜여져 있다. 꽃의 바깥쪽에는 꽃잎의 윤곽선
을 따라 가는 금선과 금세립으로 장식하고 꽃판 가
운데에는 금선을 물방울 형태로 붙였다. 이 꽃의 밑
으로 은비녀를 꽂기 위한 대롱부에도 원형과 물방울

22) 黃五根, 『韓國裝身具史』, 서울: 瑞五堂, 1976, pp.97-98.

23) 李浩官, 『韓國의 金屬工藝』, 서울: 文藝出版社, 1997, p.186.

24) 李亨求, 趙由典, 尹世英, 車勇杰, 『高句麗의 考古文物』, 調查研究報告書96-1, 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6, pp.326-327.

<표 2> 비녀 유물

	명 칭	시 대	출토지
비녀	뼈비녀	B.C. 3000년	소영자 고분
	은비녀(L자형)	고구려	중국 길림성 집안현
	은비녀(2개)	고구려	평안남도 순천시 북창리 고장골 제1호분
	은비녀	고구려	팔정리역화고분
	금비녀	고구려	干郊區鄕城 뒤의 한 耕作地
	금비녀	고구려	通溝八隊西山의 파괴된 고분
	은비녀	백제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함양리
	금비녀	고신라	경주 銀鈴塚

형으로 세선을 붙이고 그 주위를 세립으로 돌려 장식하는 고도의 공예술을 보여주고 있다. 정교하게 처리된 세부 기법이 돋보이는 장신구이다.²⁵⁾

고신라 지역 출토 비녀 유물은 그 유존예가 많지 않아 그 자세한 형태는 알 수 없는데 銀鈴塚 출토 금제품은 비녀의 頭部라고 인정되는 것으로 몸통 자체는 銀製이었던 것으로 결실되어 흔적만 남아 있다. 菱形的 두드러져 나온 부분에는 赤色の 색소가 들어 있다.²⁶⁾고 한다.

이상과 같은 비녀류들을 고분출토품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그림 13> 釵. 晉 廣州西郊 출토
(漢代の文物, p.32)

Ⅲ. 釵·步搖 文獻 考察 및 樣式

1. 釵

結髮을 시키는 것에는 釵라는 것이 있다.

『說文』新附에 釵, 并屬 이라 하여 釵는 笄에 속한 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釋名』釋首飾에 '釵는 叉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二叉의 형을 상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름이 명명된 것으로 보인다.²⁷⁾ 즉, <그림 13>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집게형으로 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²⁸⁾

지금까지 출토된 삼국시대 釵의 유물은 고구려

지역 출토품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前述한 '梳'의 경우와 같이 통일신라시대 흥덕왕 복식금제 품목에 '釵'에 대한 기록²⁹⁾도 나오고 있으므로 전시대인 고신라 지역에서도 이와 동일한 釵의 착용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구려 지역 출토 釵의 유물은 재료를 주로 청동, 은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傳 東明王陵에서 출토된 靑銅釵는 2점으로 2점 모두 U자형으로 되었다. 그 중 1개는 사이가 넓고 다 른 하나는 좁다. 넓은 것은 끝이 부러져서 그 완전한 길이를 알 수 없으나 대략 길이는 5.2cm이고 넓이는

25) 백제문화개발연구소, 『백제 조각·공예도록』, pp.111-113.

26) 金載元, 金元龍, 「壺杆塚과 銀鈴塚」, 『國立博物館 古蹟調査報告書』, 1948, pp. 5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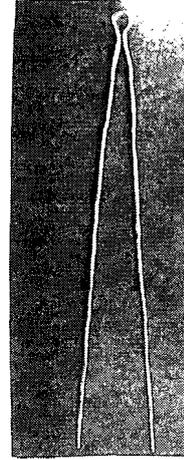
27) 釵, 叉也, 象叉之形, 因名之也

28) 林巳奈夫(編), *op. cit.* pp.84-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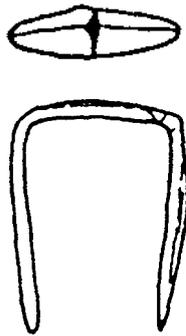
29) 유희경, 김문자, *op. cit.* pp.8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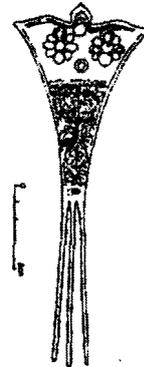
<그림 14> 青銅鏃, 고구려 평양시 역포구역
용산리 유적지 출토
(조선유적유물도감, 4권 p.280)



<그림 16> 銀製鏃, 고구려 평안남도 순천시
용악동 출토
(조선유적유물도감, 4권 p.278)



<그림 15> 銀製鏃.
고구려 강서군 보림리 대동 제 5호 무덤 출토
(강서군 태성 저수지 내부지대의
고구려 무덤, p.201)



<그림 17> 銅鏃
백제 武寧王陵 출토
(武寧王陵發掘調査報告書, p.21)

2.2cm이며 굽기는 4mm 정도이며, 녹슬지 않게 검은 색 塗裝을 하였다. 좁은 것의 길이는 6.6cm이고, 넓이는 1.3cm 내외이며, 굽기는 4mm 정도이다.³⁰⁾

평양시 역포구역 용산리 유적지에서 출토된 青銅鏃 (그림 14)는 길이 6.6cm(큰 것)이다. 1점은 반파되고 1점만이 완형인 것으로,³¹⁾ 형태는 아무 장식이 없고 前者와 같은 U자형의 일반형이다.

강서군 보림리 대동 제 5호 무덤 출토 銀製鏃 (그림 15)는 보존 상태가 매우 좋으며 정면은 배가 부르고 가운데에 등선을 내어 단면이 얇은 稜角을 이룬다. 길이 3cm 너비 2.3cm이다.³²⁾

30) 尹世英, 「古墳出土 副葬品研究」,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8. pp.27-28.

31) 李浩官, *op. cit.* p.185.

32) 전주농, 「강서군 태성 저수지 내부지대의 고구려 무덤」, 고고학자료집 제3집, 각자유적정리보고, 과학원출판사, 1963, p. 201.

<표 3> 釵와 爵釵 유물

	명 칭	시 대	출토지
釵	靑銅釵 2개(U字형)	고구려	傳 東明王陵
	靑銅釵(U字형)	고구려	평양시 역포구역 용산리 유적지
	銀製釵	고구려	강서군 보림리 대동 제5호 무덤
	銀製釵(집게형)	고구려	평안남도 순천시 용악동
爵釵	金爵釵	백 제	武寧王陵

평안남도 순천시 용악동에서 출토된 銀製釵 (그림 16)는 앞의 釵 등과 는 약간 다르게 집게 모양을 하고 있다.³³⁾

한편 『釋名』釋首飾에 ‘爵釵는 채의 머리부분에 爵 즉, 鳳凰이 붙어있는 釵를 가리키는 것’³⁴⁾으로 武寧王陵 출토 금채품 (그림 17)등이 그것일 것이다.

전체길이는 18.4 cm이고 전체너비는 6.8 cm이다. 얇은 金板으로 된 三角形部와 3가지의 꼬챙이로 구성된 것으로서 윗부분인 삼각형부분은 새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고 아래 꼬챙이부분은 새의 긴 꼬리처럼 되어 전체모양이 날고 있는 새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머리부분 아래 2개의 圓文을 사이에 두고 양쪽 날개 아래에는 打出八葉文을 각각 1개씩 배치하였다. 문양은 모두 안에서 밖으로 두들겨 솟게 한 타출문이고 그 아래 몸통에는 끝으로 역시 타출한 S자형 忍冬文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새의 머리 및 날개부분의 윤곽은 끝 끝으로 찍어 모양을 내었다.³⁵⁾

이상과 같은 釵類와 爵釵를 고분출토품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2. 步搖

步搖는 두식의 일종으로 보행에 따라서 동요하는 수식이며 보통 釵頭에 늘어뜨렸다. 『釋名』釋首飾에 는 「步搖上有垂珠 步則搖也」라고 있다.

또한 晉代에는 『晉書』輿服志에 皇后... 首飾 則假 鈿步搖, 以金爲鳳. 俗謂珠松是也라고 있어 假髻와 더



<그림 18> 步搖. 晉 女史箴圖
(漢代의文物 圖板 p. 31)

불어 황후 및 궁녀의 머리장식등의 하나가 되었다. (그림 18) 이와 같은 步搖는 가계의 풍속과 더불어 원래 북방유목민족의 풍속이었는데 위진 이후 한인 사회에 채용된 것으로 한 대 이전에 冠에 달았던 步搖와는 의미가 다르다.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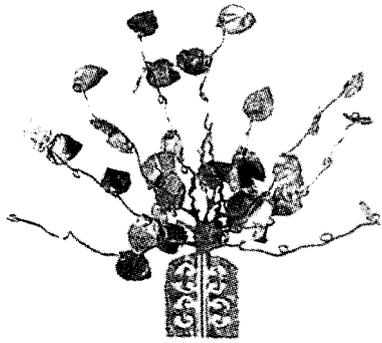
북방유목기마민족의 하나인 선비족의 A.D. 1C~4C 경우 분묘인 遼寧省北票縣房身2號墳에서出土된 花樹狀金飾 (그림 19)은 下部에는 1개의 脊稜이 突出되었고, 그 左側에는 雲文이 透彫되어 있으며, 주

33)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편), 『북한의문화재와 문화유적』 II 고구려편,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p. 272.

34) 爵釵, 釵頭施爵也

35)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武寧王陵發掘調査報告書』, 1973, p.21.

36) 杉本正年, 문광회(역), 『동양복장사논고』 중세편, 서울:경춘사, 1997, p.209.



<그림 19> 花樹狀金飾
선비 遼寧省北票縣房身 2號墳 出土
(遼寧省博物館, p.183)



<그림 20> 步搖
고구려 안악 3호분 벽화 인물상
(高句麗 古墳壁畫, 도판 5)

변 전체에는 針이 앞으로 나온 것 같은 穴이 있다. 그 上部는 中心에 3개의 大枝가 분출하고 그 옆으로 16개의 小枝로 나뉘어져 각각의 枝를 回轉시켜 環을 만들었다. 거기에 桃實形의 金葉이 달려있다.³⁷⁾ 이 유물은 冠前立飾으로도 보이나 林巳奈夫는 이를 步搖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³⁸⁾

唐代 부인들 사이에 步搖가 전성했던 것도 서역 호족에서 영향 받은 것이라 하며,³⁹⁾ 당시의 步搖는 地位와 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步搖의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다만 고구려 고분벽화 안악 3호분 벽화 남벽에 그려진 인물상(그림 20) 중 왕비상은 假髻로 장식한 高髻를 이루고 있는데 그 위에 가늘고 긴 머리장식을 방사상으로 늘어지게 꽂았으며, 또 꽃모양의 머리꽃이를 머리에 꽂아 이마와 귓전까지 느렸다. 또한 왕비를 시종드는 시녀로 보이는 여인들도 모두 머리를 假髻로 장식하고 왕비와 거의 동일한 머리장식을 머리에 꽂아 늘어뜨리고 있는데 이것들이 중국에서 성행하던 步搖의 일종으로 보인다.

IV. 결 론

삼국시대 머리장신구는 크게 나누어 빗, 비녀, 釵, 步搖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빗은 원래 중국에서는 齒가 성긴 '梳'와 조밀한 '比'로 구분되고 있었으나 梳와 比를 총칭하여 櫛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삼국시대 우리 나라의 고분 출토 유물들은 정확히 '소'와 '비'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삼국시대에도 두 가지 양식이 공존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빗의 유물은 고신라 고분인 壺杆塚, 황남동 제 98호분 북분, 천마총, 금령총, 식리총 등에서 출토되고 있다.

비녀는 '笄'나 '簪'으로 불리던 것인데 笄는 冠을 고정시키는 용도는 물론 성인남자가 사용했고 또한 여성들도 머리에 장식용으로 常用했을 것으로 보이며 漢代 이후에는 주로 簪으로 불린 것으로 보인다. 비녀의 착용모습은 고구려 고분벽화 인물도에서 볼 수 있고, 유물은 고구려, 백제, 고신라 모든 지역에서 다양하게 출토되고 있는데 주로 L자형과 장식을 가한 環頭形으로 되어 있다.

釵는 叉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二叉의 형을 상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름이 명명된 것으로 보인다. 즉, 집게형으로 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釵의 유물은 주로 고구려 관계 고분에서 출토되고 있는데 재료가 주로 청동, 은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U자형으로 되었으며 드물게 죽집계형

37) 徐秉琨, "北燕의 馮素弗鮮卑墓의 出土文物" 『遼寧省博物館』, 東京: 講談社・文物出版社, 1981, p.183.

38) 林巳奈夫(編), *op. cit.* p.81. 도판 2-131.

39) 杉本正年, 문광회(역), *op. cit.* p.209.

으로 된 것도 있다.

한편 특수한 釵의 일종인 鳳凰이 붙어있는 釵를 가리키는 爵釵는 백제 武寧王陵 출토품이 그것일 것이다.

步搖는 가계의 풍속과 더불어 원래 북방유목민족의 풍속이었는데 위진 이후 한인사회에 채용된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步搖의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다만 고구려 고분벽화 인물도에 그 착용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상으로 삼국시대 머리 장신구의 양식 및 그 유례들을 살펴보았는데 유물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아 좀더 상세한 형태는 계속 보충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국립중앙박물관(편) (1991), 『스키타이 황금』, 서울: 조선일보사.
- 김기웅 (1992), 『고분유물』, 서울: 대원사.
- 김용문 (1993), "아시아의 修髮樣式에 관한 研究"-東아시아를 중심으로, 성신여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 金元龍, (1973), 『韓國美術全集』 4 壁畫 서울: 동화출판공사.
- 金載元, 金元龍 (1948), 『奈河塚과 銀鈴塚』 『國立博物館 古蹟調査報告書』.
- 梅原末治 (1932), 『慶州金鈴塚·節履塚發掘調査報告』 『大正13年度古蹟調査報告第1冊』.
-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3), 『武寧王陵發掘調査報告書』.
-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4), 『天馬塚發掘調査報告書』.
-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85), 『皇南大家(北墳)發掘調査報告書』.
- 文化財管理局 (1991), 『北韓文化遺蹟發掘概報』, 北韓文化財 調査書第 3冊.
- 박진석, 강맹산 (1999), 『고구려유적과 유물연구』 서울: 백산자료원.
- 裴貞龍 (1982), "三國時代 婦女首飾의 樣式에 관한 研究", 진흥실선생회갑기념논문집.
- 杉本正年, 문광희(역) (1995), 『동양복장사』 고대편, 서울: 경춘사.
- 杉本正年, 문광희(역) (1997), 『동양복장사』 중세편, 서울: 경춘사.
- 사회과학출판사(편) (1988), 『고구려 문화사』, 논장.
- 徐秉琨 (1981), "北燕の馮素弗鮮卑墓の出土文物" 『遼寧省博物館』, 東京: 講談社·文物出版社.
- 『안악 제 3호분 발굴 보고』 (1958),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과학원출판사.
- 尹世英 (1988), 『古墳出土 副葬品研究』, 고대민족문화연구소.
- 이은창 (1978), 『한국복식의 역사』,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李亨求 (1991), 『韓國古代文化의 起源』, 서울: 까치.
- 李亨求, 趙由典, 尹世英, 車勇杰 (1996), 『高句麗의 考古文物』, 調査研究報告書96-1, 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李浩官 (1997), 『韓國의 金屬工藝』, 서울: 文藝出版社.
- 林巴奈夫(編) (1976), 『漢代の文物』,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 전주봉 (1963), 『강서군 태성 저수지 내부지대의 고구려 무덤』, 고고학자료집 제3집, 각지유적정리보고, 과학원출판사.
- 鄭美敬 (1989), "우리 나라 여인의 머리 모양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3), 『조선유적유물도감』 4권, 고구려편 2, 부산: 민족문화.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편) (2000), 『북한의문화재와 문화유적 II』, 고구려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朝鮮畫報社出版部(編) (1986), 『高句麗古墳壁畫』, 東京: 朝鮮畫報社.
- 周迅, 高春明 (1988), 『中國歷代婦女妝飾』, 三聯書店, 上海學林出版社.
- 주영현 (1963), 『약수리 벽화무덤 발굴 보고』, 고고학자료집 제 3집, 각지유적정리보고, 과학원출판사.
- 최무장 (1995), 『고구려고고학 II』, 서울: 민음사.
- 『태성리 고분군 발굴보고』 (1959), 유적발굴보고 제 5집, 과학원출판사.
- 한국국제교류재단 (1998), 『한국문화재』, 서울: 한국국제교류재단.
- 韓炳三(編) (1975), 『韓國美術全集』 2, 古墳美術. 서울: 同和出版公社.
- 黃沅根 (1976), 『韓國裝身具史』, 서울: 瑞文堂.
- <http://gwangju.museum.go.kr/kor/sch/sch.htm>
- http://www.museum.go.kr/kor/sch/sch_src/sch_src_lis.jsp